

# 수입 양곡의 도입전후 관리실태

이영상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부. mariolee@sch.ac.kr)

## 1. 서언

UR 협상 이후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004년 현재 특별취급을 받는 쌀 관련 16개 품목(메현미, 찰현미, 멥쌀, 찰쌀, 쇠비, 쌀가루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이미 개방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곡 자급도를 살펴보면 2,098만톤의 양곡 수요량중 국내 생산량은 554만톤(전년 대비 10%가 감소)으로 자급도는 26.9%(사료용 제외시 자급도는 58.3%)에 머물고 있으며 쌀(97.5%)과 보리(45.5%) 이외에 콩(6.9%), 밀(0.1%), 옥수수(0.8%) 등의 자급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57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14위(OECD 회원국 중 12위)의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입량은 각각 143, 498, 8,800천톤으로 금액으로는 각각 49, 411, 1,055백만\$에 이르고 있다(2002년도).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의 양곡이 국내에 수입되고 유통,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입 양곡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은 향후 국내 양곡 산업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또한 수입되는 양곡의 품질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 2. 농산물의 수입 제도

농산물은 대상 품목에 따라 국내외 상황, 국내에서의 용도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수입 주체, 수입 형태, 규격, 관세, 유통 관리 등 양곡의 수입 및 관리 체계 역시 매우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관리는 관세화와 시장접근 기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정문에 따라 새로운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농산물협상에 있어 예외 없는 관세화가 채택되었으나,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수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수출국들은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장접근물량은 기준년도('88 ~'90) 소비량의 3 ~ 5% 물량을 기본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 방식과 현재 수입되고 있는 물량을 유지하는 현행시장접근(CMA : Current Market Access)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188개 품목을 시장접근물량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농림부장관에 위임된 구체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3가지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외의 민간 수입은 고율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로이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쌀(MMA)과 대두(CMA)는 주로 국영 무역방식에 의하여, 옥수수는 실수요자 추천 방식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다.

## 3. 쌀과 콩의 수입 및 관리

### 가. 쌀

쌀은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을 유예한 대신 최소시장접근방식(MMA)에 따라 1995년 소비량의 1%(51,307톤)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4%(205,228톤)까지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가공용으로만 수입되는 쌀은 현행세율 5%를 부과되, 국내의 가격 차이가 막대한 점을 감안하여 국영 무역방식을 택하여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 지정된 기관만이 수입,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지정기관 배정방식에 따라 수입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쌀의 수입 절차를 살펴보면, 농림부의 계획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외자구매 입찰을 공고한다. 본 일반공개경쟁입찰

에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 등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미국, 중국 및 태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다. 쌀은 전량 현미(brown rice) 상태로 40 kg 단위 백색 PP 포대 포장하여 수입되는데, 뉘(벼): 2% 이하, 수분: 14.5% 이하, 쌀: 10 % 이하, 관련 이물 : 0.2 % 이하, 비관련 이물: 0.1% 이하 등 품위 규격에 합당하여야 한다. 2004년 현재 대부분 미국산 쌀이 수입되고 있는데, 주로 하절기를 피한 동절기에 인천, 군산, 목포, 여수, 울산, 동해, 마산 등 각 지역별 주요 항으로 나뉘어 수입되어 가까운 지역의 양곡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해당 지역 수요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선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1만-2만톤 규모의 모선이 각 항별로 년 1-2회 입항하고 있으며 미국산의 경우 모선의 미국 출항에서 한국 입항까지의 수송 기간은 약 20일 내외이다. 항구에 도착한 쌀은 모선의 hatch 개방 전에 예비검역을 수행하고 검역을 통과할 경우 하역을 시작하며 20% 하역이 완료된 후에 다시 본 검역을 실시한 후 전량 반출케 된다. 하역에는 약 10여일이 소요되며 중국산은 모두 상품 규격에 따라 40 kg PP 포대에, 미국산 쌀의 경우 40 kg PP포대에 개별 포장후 다시 1.5 톤 용량의 톤백으로 대용량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곡창고의 시설 및 설비가 톤백 상태로는 입출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하역 작업중 40kg 용량의 소포장 단위로 톤백을 해체한 후 25톤 트럭에 적재하고 있다. 하역과 동시에 창고로의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10일 이내의 임시 야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pellet당 톤백을 2 층으로 적재하고, 외부 타포린 sheet 포함 3겹의 포장을 실시하고 있다. 트럭 적재 및 계근과 동시에 품위규격에 대한 검사가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후 양곡 창고로 수송, 저장되었다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창고에서 방출되고 RPC에서 도정이 이루어진 후 실 수요자에게 수송이 완료되고 있다. 창고에서의 보관 기관 및 그로 인한 재고량은 수요 및 판매 여부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 콩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하여 현행시장접근(CMA: Current Market Access) 방식에 따라 연간 약 140만 ~ 150만톤의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대두는 다양한 용도로 수입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수입 관리/추천 기관과 관세가 상이한데 국영무역품으로 수입되는 식용(가공용)콩, 콩나물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종자용은 국립종자관리소를 통하여,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은 대두가공 협회를 통하여 각각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콩의 수출국을 살펴보면, 식용콩은 주로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몽골, 호주 등지에서, 채유 및 탈지박용은 미국, 브라질에서 수입되며 국가별로는 미국 (87%) > 브라질 (13%) > 중국 (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영무역품이 아닌 일반수입품으로 민간업체에 의해 수입되는 대두중에서 식용콩은 60 -70%가 콩나물용으로 수입되는데, 95년 이후 꾸준히 수입량이 증가하여 2002년 8,712톤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콩을 분말화한 가공품으로 두부 제조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대두분은 2002년 10,929톤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우선 식용(가공용)콩의 수입 과정을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콩을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두부),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장류), 한국식품공업협회(두유), 서울제일메주공업협동조합(메주용), 군인공제회(군수용), 법무부(관수용) 등 조합/연합회와 연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회원)들로부터 필요물량을 신청받아 연간 8-9회에 걸쳐 매 회당 약 25,000톤을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한다. 수입되는 콩의 품위 규격은 부셀당 56파운드 이상, 파쇄립 10% 이내, 벼질율총계 2% 이내, 수분 13% 이내, 단백질함량 35% 이내, 이물 1% 이내, 이종피색 1% 이내 등이다. 콩은 쌀과 달리 생산국에서 정선 등의 작업 없이 수확된 상태 그대로 bulk 형태로 모선에 선적되어 국내 항에 도착한다. 검역, 통관, 품질규격등위 등 제반 검사가 완료된 콩은 2-3일 간에 걸쳐 항에 설치된 Silo로 입고, 보관하는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박으로부터 Silo까지는 conveyer를 이용하여 수송하게 된다. 인천항에 소재한 관련 회사의 경우 선박으로부터 약 1.8 km 떨어진 곳에 두께 25 cm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

어진 20만톤 규모의 Silo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90 여개로 나누어진 각 Bin 마다 각 모선별로 수입양곡을 저장하고 있다. Silo에 저장된 콩은 공급 대상 업체들로부터 직배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물량을 비중선별-입자선별-먼지/껍질 분리 등 정선 작업을 거친 후 50 kg 용량의 PP포대에 포장을 실시한 후, 수송 차량에 싣고 협회와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 창고까지 운송한다. 장류용의 경우 공급량의 30% 정도를 500 kg 점도백으로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다.

한편 가격조절용으로 수입되는 콩나물콩의 경우 완전립 97% 이상, 발아율 90% 이상, 수분함량 11-14% 등 품위 규격에 해당하는 콩을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낙찰된 콩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면 검사를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유통공사 비축 창고로 운송, 보관후 국내 수급동향에 따라 전체 물량의 20%는 콩나물을 직접 재배하는 실수요업체에게 공매를 통하여, 80%는 공매의 평균가격에 대한 두채협회에 판매를 실시한다.

기타 식용대두박 제조용콩의 경우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입된 물량이 항구에 도착하면 제반 절차에 따라 검사 등을 필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여 자사가공공장으로 운송, 보관후 실수요업체 공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용도는 장류용 탈지대두박, 고단백분, 대두분 등이다. 또한 종자용 콩의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소로부터 종자용 콩을 배정받은 업체가 수입하여 제반 검사를 필한 후 전량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5월 파종기 이전에 수입이 완료토록 되어있다.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 콩의 경우는 CJ(주), (주)신동방, 삼양유지사료(주) 등 3개 업체별로 약 40만톤씩의 연간 수요물량을 배정받아 수입한 후 자사 가공 공장으로 운송 보관하며 사용한다.

#### 4. 결론 및 제언

‘수입 양곡의 수확후 품질 관리’라는 주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을 억제하려는 많은 노력과 상충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용 양곡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분량의 양곡 등의 경우 수입물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작물학적 관점에서 국내 수요에 부응하는 용도별 품질 규격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설정, 작물 및 용도별 국내 도입 이후의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조건에 대한 연구와 개선 방안 모색 등은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수출국에 대한 철저한 규격 준수 요청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 품질 검사제도의 보강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선결 과제라 하겠다.